

2. 국내 대학 미래 생존율 예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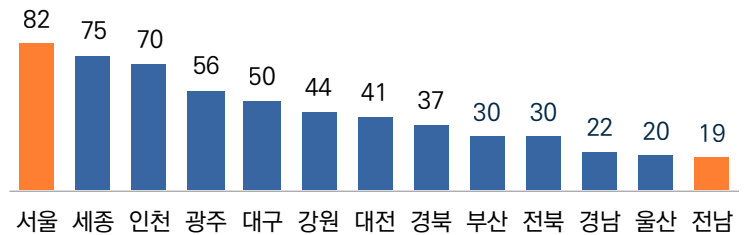
국내 대학, 25년 후 현재의 절반만 생존!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최근 '미래전망 전문가포럼'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전국 385개 대학을 대상으로 미래 전망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, 25년 후(2042~2046)년 후 국내 대학교 수가 현재의 절반(190개, 49%)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.
-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곳, 즉 가장 낮은 생존율을 기록한 지역은 '전남' 19%, '울산' 20%, '경남' 22%로 5개 대학 중 1개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했고, 가장 높은 생존율 도시로는 '서울' 82%, '세종' 75%로 나타났다.

[그림] 국내 대학 25년 후 생존율

2021년 : 385개 대학
2042~2046년 : 190개 대학
(현재의 49%)

[그림] 국내 대학 25년 후 생존율



*자료 출처 : 연합뉴스, 2021. 12.05, '2046년 국내 대학 절반 이상 사라져...청년세대 지역갈등 우려'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120404590000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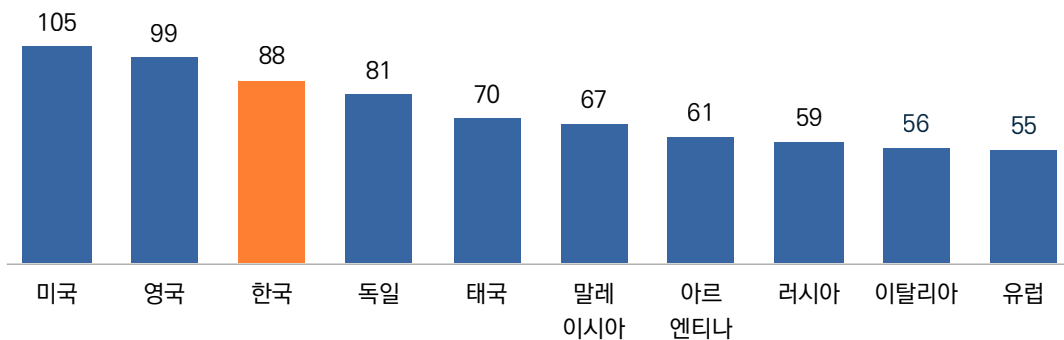
3.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현황



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, '한국' 88kg으로 세 번째!

-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(NASEM)의 '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미국의 역할 평가' 보고서에 따르면,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88kg으로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'미국'이 105kg으로 가장 많았고, '영국'이 99kg으로 다음으로 많았다.
-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'환경인식'을 보다 더 높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.

[그림] 세계 주요국 플라스틱 쓰레기 1인당 배출량(세계 주요국, 상위 10위, 2016년 기준) (%)



*자료 출처 : 연합뉴스, 2021.12.02., '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... 연간 88kg' 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1202070000009)